내일 밀러전은 공격 모드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2연패? 묻고 싶은 디저스

휴대전화 교체 비용 작년 17조

NEWS p/03

노인 연간 진료비 16조 넘었다

HEALTH p/09

설악산 단풍 18일 절정

LIFE p/10

오늘부터 국감 '20일 대장정'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SNS 신상 털기' 물 만난 세상

페이스북·트위터 회원 절반, 이름·학교정보만 조합하면 주르르

#직장인 이강인(34·가명)씨는 얼마 전 부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야근 도중 졸고 있는 팀원들의 재미난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 인사팀에 의해 발각돼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인들 사이에서 'SNS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인맥이 넓긴 했지만 설마 회사에서까지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바로 폐쇄했다.

#지난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깜짝 놀랄 제보를 받았다. 한 여고생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음란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신상이 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붙잡힌 용의자 이모(31·무직)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상호 파일 공유 방식으로 '나 야메녀'라는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상 털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급 IT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해킹 기술 없이 검색어 조합만으로도 웬만한 개인의 얼굴 사진, 혈액형, 관심사, 신체 사이즈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인의 아이디(ID)를 입력하면 관련된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신상 털기 앱'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심각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이버보안연구단은 페이스북(657만 개)과 트위터(277만 개) 등 SNS이용자 계정 934만 개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학교 정보만 알아도 이용자 2명 중 1명꼴로 손쉽게 신상 털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경우 이름(100%), 성별(92%), 고등학교(47%), 혈액형(40%), 대학교(35.5%), 관심사(19.6%), 좋아하는 음악(14%) 등의 순으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됐다. 트위터의 경우 이름(69%), 지역(45%), 직업(33%) 순으로 노출 정보가 많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합친 934만 개 계정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정 수는 386만개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노출된 이름과 ID 등 간단한 정보만 엮어내도 최소 17만 개의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고 연구단은 설명했다.

이 덕분에 신상 털기는 생각보다 수월하다.

주민등록번호나 ID, 계좌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를 몰라도 이름과 고등학교 조합만을 통해서도 개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226만 명(34%)에 달했다. 여기에 대학교 정보를 추가할 경우 297만 명(45%)의 개인 식별이 가능했다.

최대선 ETRI 박사는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만 털리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SNS 계정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를 서로 연결하게 되면 웬만한 신상 털기가 가능하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서극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주부 77% "올핸 김장할래요"

먹거리 불안 확산에 지난해보다 9.1%P 늘어

먹거리 불안감에 주부 10명 중 8명은 올해 김장을 직접 담글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무·배추 등의 작황이 좋아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30%가량 덜 들 것으로 예측됐다.

롯데마트는 최근 여성 소비자 14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7.4%가 '올해 김장을 담그겠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장을 하는 이유로는 전체의 50.1%가 '안전'을 꼽아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입맛에 맞아서'(34.7%), '더 경제적이어서'(1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 중 56.4%가 30대로 집계돼 젊은층에서 먹거리 안전 때문에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올 김장철 가계 부담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비용 지난해보다 30% 덜 들듯

이마트에 따르면 김장 시작 주간 다음달 첫째 주 기준 4인 가족당 예상 김장 비용은 20만~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3~28.9%가량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배추는 지난해 이마트 판매가는 5만9600원인 반면 올해는 절반 수준인 3만~4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무도 10개 기준 지난해 2만1800원이었지만 올해는 70% 가까이 떨어진 1만3000~1만5000원에 머물고, 고춧가루 역시 1.8kg 한 봉 값이 지난해 7만4700원에서 5만6000원 안팎으로 30% 넘게 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마트 관계자는 "전체 김장 비용의 6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배추와 무 등 채소가 태풍 피해를 입지 않고 작황이 좋아 비용 절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illegible]기자

전국 택시요금 모두 올랐다

올 평균 상승률 무려 15%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일제히 올라 지방 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형 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수도권에서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평균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1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중형 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2740원으로 작년 11월 말 2382원 대비 15% 올랐다.

올해 들어 전국 택시요금은 1월 1일 부산·대구·울산을 시작으로 상반기 충남·대전·경북·전북·전남·강원 등에 이어 하반기 제주·세종시·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일제히 인상됐다.

13일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 중형택시 요금조정 안내 및 조리도 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 지방공공요금 인상 주도

택시요금의 인상폭은 시내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기간에 하수도료는 4.9%, 도시가스료는 4.7%, 상수도료는 2.2%, 시내버스료(카드)는 1.6%, 쓰레기봉투료는 0.5% 올라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 15%와는 차이가 크다. /이본곤기자

경로당 여가복지시설 탈바꿈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경로당을 복합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했다.

구는 (사)대한노인회금천지회,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어르신 대상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각 기관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종이접기, 바둑교실 등 10여 개 프로그램을 지역 내 약 60개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 의료관광설명회 성황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첨단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11일 '2013 강서구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러시아·몽골·중국·일본·네팔·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현지 의료진 및 에이전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세 사는 집 경매 때 우선변제 보증금 7500만→9500만원으로 상향

최대 3200만원까지 보장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도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곳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원~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100만원~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월세전환 비율 14→10%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존보다 낮아져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서울숲엔 가을이 둥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은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엔 민생" 약속 지켜질까

오늘 국감 시작 - 20일간 사상 최대 630개 기관 대상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세계가전 4대강 사업 평가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잘 막아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의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해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활용한 정쟁 유발 행위는 차단해 비판적 대안자 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한길 대표는 "국감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민준기자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도 내년부터 긴급전화서비스

내년부터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도 긴급 전화 서비스로 지정돼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 통신용 전화 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긴급 통신용 전화 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 통화' 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윤다혜기자 yolhy@

복장은 달라도 힘겹긴 마찬가지 13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63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겨운 표정으로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학생에게 맞은 교사 81명

올 1학기에만 - 교권침해 상담 신청도 2배 늘어

올 들어 일선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81명에 달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권 침해 상담 접수 건수는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 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교원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 간 갈등 및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45%) 증가했다.

특히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다혜기자 ys1994

달빛에 젖어… 우리가락에 젖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인사동 달빛 한옥음악회'가 매월 첫째·셋째주 금요일 인사동홍보관 내 의화헌에서 열린다. 전 KBS 아나운서 최애미의 사회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가곡 이수 보유자인 김영기를 비롯해 KBS 국악관현악단의 최다신(해금)과 신주희(대금), 한양대 교수인 조주선(판소리) 등이 나서 흥을 돋운다. 문의 02)737-7890 /인사동홍보관 제공

'폰' 바꾸는데 17조 펑펑

지난해 휴대전화 교체비용 1년새 2배 · "이통사 과도한 마케팅 탓"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교체 비용이 17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인 이상 가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금액으로 2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지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휴대전화 구입 금액이 17조4000억원으로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연구개발(R&D) 투자 예산(17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금액은 2011년 휴대전화 구입 비용인 8조9000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1년 만에 총 2배가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비싼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하게끔 조장해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금액을 공개했다.

가구원 수(평균 3.27명), 단말기 교체율(67.8%), 단말기 실질 부담금(85만7200원)을 곱한 것으로 액수는 190만508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소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은 약정요금 할인 등 통신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영아 업어 재워 숨지게한 어린이집 억대 배상 판결

감기에 걸린 생후 7개월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감싼 채 업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민사상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13일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군의 유족이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아를 업어 재우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고,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도 간과했다"며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A군이 당시 감기에 걸려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한솔기자

"고민되네" 12일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문제 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서울 '복지 디폴트'

서울시가 2015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3일 공개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원에 각각 3257억원, 2759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몇 년째 16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접지 않는 한 6000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확대가 7월부터 시행돼 1200억원 정도만 늘어나지만 2015년부터는 추가 부담 규모가 배로 증가한다.

또 올해 56만7000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 59만8000명, 2015년에는 64만5460명으로 급증한다. 2020년에는 79만 명까지 늘어나 추가 부담 규모가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평균 1억…교통사망 보험금보다 높은 외제차 수리비

외제차 수리비가 교통 사망자 지급 보험금보다 많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교통사고 피해 외제차 수리비가 사고 사망자 평균 지급 보험금(2011년 기준) 1억300만원보다 많이 나온 사례는 43건이나 됐다.

43건의 차 수리비는 총 69억1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수리비는 1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수리비가 2억원이 넘은 사고도 3년간 8건 있었다. 벤츠의 경우 수리비 견적이 4억30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삼성>

그림 박상철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 자살

1944년 10월 14일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이끈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 중 한 사람인 에르빈 로멜이 히틀러의 자살 명령을 받고 음독자살했다. 이미 제1차세계대전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최고 훈장을 받았던 로멜은 나치스당에 관심을 가져 히틀러의 경호 대장에 임명되고 기갑사단 지휘자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군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사막의 여우'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와 학살을 참아내지 못한 뒤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전투에서 그의 신조는 '공격 아니면 반격'이었다고 한다.

침대밑 시신과 '끔찍한 동거'

metro HongKong

우연히 침대 밑에 손을 넣었는데 사람 손이 만져진다면?

최근 중국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5일 저장성 리장(麗江)시에 사는 천모씨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천씨는 전화기를 찾으려고 침대 아래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차갑고 딸랑한 물체가 만져졌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손을 좀 더 뻗은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 손이었다. 놀란 천씨가 침대를 옮겨서 보니 침대 밑에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있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천씨의 룸메이트인 왕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침대 밑에 있던 시체는 왕씨의 일곱살 많은 이복 누나 사모씨. 이 둘의 부모는 각각 왕씨와 사씨를 데리고 재혼했다.

사씨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 왕씨가 위로를 해주면서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두 사람은 두 달간 연애를 했다. 하지만 누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 왕씨가 말다툼을 하다 사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조선미기자

"거미줄이 너무 무서워" 배달 거부한 美집배원

사나은 개가 으르렁거려 우편집배원이 배달하는 데 애를 먹을 수는 있어도 거미줄 때문에 우편 배달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까?

영국에서 우편집배원이 거미줄 때문에 배달을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전했다.

런던 남부 클래펌 지역에 거주하는 스튜어트 로버트슨리드는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있어 (당신 집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메모가 있었다. 뒤늦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동료 집배원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리드는 "집배원이 거미를 사랑해 거미집(줄)을 없애고 싶지 않았거나 겁이 너무 많아 거미를 보고 도망간 모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조선미기자

말랄라 노벨평화상은 못 탔지만 —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 관계자(왼쪽)가 올해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였던 파키스탄의 여성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16·가운데)에게 JFK 용기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은 말랄라의 아버지 지아우딘. 말랄라는 지난해 10월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원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핍박받는 여성 교육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말랄라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 최연소 수상이 기대됐지만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밀려 안타깝게 탈락했다. /AP 연합뉴스

'위안부' 덮고 보는 일본

"동남아 국가에선 피해자 실태조사 하지 말라" 日 외상 20년전 발언 문서 발견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실시했던 종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조사를 동남아시아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이외 다른 나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실태도 조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했던 것.

13일 아사히 신문은 입수한 외교 문서를 인용, 1993년 7월 30일 무토 가분 당시 외상이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에 위안부 관련 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토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고노담화 발표 직전 나왔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이외 다른 나라로 위안부 문제가 확산, 국가 간 갈등이 빚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신사 추계 예대제(10월 17~20일) 기간 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아베, 야스쿠니 참배 안할듯

12일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두고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는 않았다. 그는 올해 춘계 예대제와 패전일(광복절)에는 참배를 하는 대신 공물료를 봉납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애플 '우주선 사옥' 드디어 내달 첫삽

우주선 모양으로 짓는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애플의 신사옥(사진)이 드디어 다음달께 착공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시의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과 다음달 19일에 공청회를 검토 공개회의를 잇따라 열어 애플의 신사옥 건축 계획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날 경우 이르면 다음달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건축 기간은 32개월로 완공은 201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선 사옥은 26만㎡ 넓이의 4층 건물로 건축 비용만 50억 달러(약 5조36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은 이 사옥에 1만42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만들고 자전거 거치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미국[illegible]기자

페루 원주민 51명 태운 트럭 200m 절벽 추락 전원 사망

페루에서 11일(현지시간) 원주민이 탄 차량이 200m 낭떠러지로 추락해 50여 명이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콘벤시온주 쿠스코 지역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51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희생자들은 전부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인근 마을 축제에 갔다가 개조한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2024.90 (+23.50)
코스닥 532.90 (+3.50)
금리 2.9 (-0.01)
환율 1072.00 (+0.50)

삼성-LG 'UHD TV 가격인하' 경쟁

울트라HD TV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65·55인치 울트라HD(UHD) TV 국내 판매 가격을 740만원과 490만원으로 내렸다. 지난 5월 출시 당시 가격인 890만원과 640만원에 비해 17%와 23% 저렴해진 것이다. LG전자도 65·55인치 기본형 UHD TV 가격을 출고가보다 17% 인하된 740만원과 490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양사는 미국 시장에서도 UHD TV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인 바 있다.

UHD TV는 기존 풀HD TV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차세대 고화질 TV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으로 UHD TV 시장점유율을 늘이려는 업계 경쟁이 계속 지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은혜기자

뉴스&뉴스

사과야 대추야? 신세계백화점이 13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청과매장에서 사과 및 대추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100g 당 4380원. /뉴시스

한국-인니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통화스와프를 맺는다.

1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양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최대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원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와프는 우리나라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원화로 10조7000억원(115조 루피아화) 규모로 만기는 3년이며 양국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김승호기자

전세금보증 상위층 쏠림

● 전세난 속에 전세자금보증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세자금보증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20%에 나간 보증 공급액은 61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5% 증가에 불과했다. /김현정기자

남의 일 아닌 '日 잃어버린 20년'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되면 한국도 일본식 장기침체 겪을수도"

김현정기자가 만난 금융가 사람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곽영훈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너도나도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셋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자산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를 겪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영훈(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한국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수퍼이브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국내 경제가 전분기 대비 0%대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등 저성장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패턴이 일본의 '고도성장→안정성장→제로성장 이후 저성장(디플레) 고착화'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등이 양국 간 공통점이다.

그는 이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디플레는 자산 가격 하락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한국 역시 최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볼 때 일본과 같은 자산 디플레를 촉발할 잠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요 타격을 입었다"며 "반면 한국은 기업뿐만 아니라 주택 등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가계들까지 자산 디플레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구매력을 잃을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란 일본인들의 디플레 심리를 바꾸려는 데 있다"며 "한국 역시 국내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지속적인 가격 하락 기대를 해소해 자산 디플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대한항공 승무원들 "오늘은 이웃돕는 천사" 12일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대한항공이 개최한 '2013년 하늘사랑 바자회'에서 승무원들과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강서구청에 위탁해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분양 시장 가을흥행 이번주도 앗! 뜨거워

분양 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이번주에도 흥행몰이가 계속될 전망이다.

◆청약 17곳, 견본주택 13곳 공개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청약 접수 17곳, 당첨자 발표 18곳, 당첨자 계약 6곳, 견본주택 개관 13곳 등이 예정돼 있다.

LH는 14일 수원시 수원호매실 A4블록에 공급하는 분납 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4~15일은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6~18일은 일반 공급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포스코건설은 1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C1-4블록에 공급하는 '송파 와이즈 더샵'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면적 96~99㎡ 총 390가구로 구성된다.

삼성물산은 18일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11구역에 공급하는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949가구 중 47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 6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 올림픽대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은행들 '저축의 날' 금리우대 통장 손짓

IBK 최고 0.3%포인트 혜택

주요 은행들이 오는 29일 '저축의 날' 50주년을 맞아 신규 고객 유치와 저축 활성화를 위해 특판 상품과 관련 이벤트를 준비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최고 0.3%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독도는 우리땅 통장' 또는 'IBK 새희망적금'에 가입한 19세 이하의 고객이다. 독도는 우리땅 통장 정기적립식 1년제의 경우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3.1%다. 이번 특별금리 0.3%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3.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품별로 1계좌씩 각각 15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7일부터 특판예금을 판매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저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고객들이 추억하고, 그리고 싶어하는 가을을 엽서에 직접 담아보는 체험 행사다. 영업점을 방문하면 준비된 엽서와 크레용으로 자유롭게 가을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진 엽서는 영업점 벽면에 마련된 이벤트 공간에 부착돼 가을 벽화로 만들어진다.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또 '내생애 아름다운 예·적금'을 고객들의 저축 활성화를 위한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0만 좌,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민지기자

로또복권 제56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10	15	0	32	41	2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316,606,458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3,748,280
3등	5개 숫자 일치	1,475,17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김송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91~3
부산광고문의 051)252-2100
독자센터 02)721-9885
2005년 1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36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 전성시대

실시간 전파 가능케한 SNS·스마트폰·LTE-A 덕
유스트림·유튜브 등 '전세계 생중계' 센터 역할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 서울 방화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 강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성수대교 붕괴라는 악몽과 같은 사건을 떠올리며 현장 상황을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의하는 등 사태 파악에 분주했지만 관련 뉴스를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이때 한 시민 저널리스트가 현장 상황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스트림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해당 채널 인터넷주소(URL)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퍼졌고 4000명에 달하는 시청자가 몰렸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아수라장이 된 공사장과 소방대원들의 구조 작업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이후 다시 보기로 해당 영상을 접한 사람은 22만 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현장 역시 탑승객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다.

태풍이 휩쓴 자리부터 다리 붕괴 등 크고 주목받을 만한 현장이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기존의 이슈 현장 중계가 텍스트, 이미지 중심에 사건 목격을 인증하는 수준이었다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실시간 중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스마트폰 LTE-A 등 IT 기술의 빠른 발전에 힘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기존 매체보다 한 발짝 빠르게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성 덕분에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이 발휘하는 힘도 커졌다.

2007년 미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 유스트림은 같은 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2009년 마이클 잭슨 추모식, 2010년 '철레 광부 구출 36시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전달하면서 월평균 160만 건의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스트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 동영상 플랫폼이 파급력을 갖게 되자 이를 활용한 개인과 단체의 현장 생중계도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선 한 농민이 동일본 지진 사태로 방사능 피해를 입은 자신의 농장을 유스트림에 24시간 생중계해 화제가 됐다. 소외된 지역의 현실은 고발해 대중의 관심을 제자 증폭시켰다.

/이상훈 기자 zen@metroseoul.co.kr

"르노삼성 '내수2위' 이끌 것"

폭스바겐서 옮겨 화제된 박동훈 부사장 자신만만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 최고경영자(CEO)자리를 내던지고 국산차 점유율 꼴찌 회사의 부사장으로 명함을 바꾼 이가 세간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박동훈(사진) 르노삼성차 영업본부 총괄 부사장. 그는 지난 8월 폭스바겐에서 르노삼성으로 예고없이 적을 옮겨 화제가 됐다. 그가 최근 서울 부암동에서 이적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박 부사장이 처음 꺼낸 말은 "후회 없다"였다. 잘나가는 수입차 브랜드에서 토종 꼴찌 회사로 왔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다.

박 부사장은 "폭스바겐에서 내가 할 일은 다했다. 더 이상 기여할 게 없다. 하지만 르노삼성에서는 판매 기여자에 맞서 예전의 위용(판매 2위)를 되찾아야 하는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위 회복'을 자신한 배경으로 르노삼성의 영업 조직을 꼽았다. 적지 않은 인원이 경쟁 업체로 갔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최근 떠났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말에 출시하는 소형 SUV 'QM3'의 선전을 자신했다.

박 부사장은 "가솔린 모델은 물론 디젤 엔진 라인업을 확보해 꼴찌 딱지를 뗀 9월에 이어 지고 올라가겠다. 세단에도 디젤 모델을 추가한다면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상준 기자

수능? 삼성 채용고사 10만명 응시 13일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가 치러진 가운데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 83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SSAT는 역대 최대인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응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원전 비중 최고 29%로 결정

● 앞으로 '꺼지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방침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민관워킹그룹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국명 기자

"애플, 외관결함도 품질보증"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적용해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품질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을 둬 소비자 논란을 불렀다.

/정문희 기자

팬택-이마트 '알뜰폰 사업'

● 팬택과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과 이마트는 휴대전화 제조·공급과 판매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이마트 전용 피처폰 생산으로 경영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마트 알뜰폰의 휴대전화 판매는 신세계의 유통업체 라즈가 맡는다.

/정문희 기자

전세살이 지친 우리부부 위한 '참 착한 집'

LH, 한강신도시 알짜 위치에 중소형 820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Ab-06블록에 총 82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를 짓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면적은 모두 74㎡형(A·B타입) 484가구, 84㎡형(A·B타입) 336가구 등 중소형 2개 주택형에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74㎡ A타입은 판상형이며 나머지 타입은 타워형으로 설계됐다.

Ab-06블록은 한강신도시 서북구래동에 위치해 교통·편의시설 등 주거 환경이 뛰어나다. 교통편은 합정~홍대~신촌~서울역 노선의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운행한다.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는다.

오는 2018년에 김포도시철도(총 23.61㎞, 9개 역)가 개통되면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개교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도서관·대형마트 등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가깝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795만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없다.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면 된다.

단지를 남동·남서향으로 배치해 일조권이 우수하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됐다.

가구별로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해 조명·가스·난방 등을 손쉽게 조절하고 승강기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도 갖췄다.

쓰레기를 단지 내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처리되는 자동클린넷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밖에 편의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 무인 택배 시스템도 설치됐다. 부부 욕실 비상콜, 음식물 탈수기, 싱크용 절수기 등도 구비됐다.

LH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일대에 있는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에 주택 분양센터를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다. 입주는 2015년 7월 예정이다.

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hangang.co.kr) LH 김포사업단(031-999-5765~7) /김현정 기자 hjkim@

대전 도룡동 '가온하이츠빌'

(주)실가홍은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용동에 레지던스형 오피스텔인 '가온 하이츠빌'을 분양 중이다. 태흥건설이 책임 시공을 맡았다.

가온 하이츠빌은 연면적 1만4961.94㎡의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 1개 동에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와 오피스텔 149세대를 합한 총 173세대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45~66.02㎡ 총 22타입,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21.74~50.00㎡ 총 10타입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형 오피스텔로 객실 안 가전제품과 침구 등은 운영사인 가온 비즈니스 호텔에서 관리하며 5년 후 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된다. 문의 1599-6535

레드카펫에 설 자격

뉴스룸에서
조성준
<엔터스포츠부장>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이른바 세계 3대 영화제에서도 톱스타들의 레드카펫 나들이는 팬들과 언론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다.

특히 여배우들의 경우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혹은 레드카펫에서 우순 해프닝을 일으켰는지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곤 한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어 올라간 치맛자락 사이로 속살이 한번 드러나면 대번에 뉴스의 톱을 장식할 만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처럼 쉬운 요소가 다분하지만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흔쾌히 나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투철한 팬서비스 정신 때문이다.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건네는 등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서 레드카펫처럼 좋은 행사가 없어서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2일 막을 내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몇몇 여배우들의 레드카펫 위 드레스 노출 수위가 어떤 저런 뒷얘기를 낳았고, 강동원의 개막식 불참 이유와 관련해 소속사와 영화제 측이 날선 독설을 주고받는 불상사까지 빚어졌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영화제 측에 내년부터는 참석하는 배우들의 '양'보다는 '질', 이니 '자발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때론 유소하다시피해 이 배우 저 배우 모셔오는 대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오고 싶어하는 이들만 레드카펫에 초대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바뀌면 레드카펫에서 배우들과 팬들이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다. 누구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팬들을 우시한 채 도망치듯 레드카펫을 벗어나는 광경이 줄어들 것이고, 개막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배우들에게 빠른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하는 영화제 측 역시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영화제 관계자들은 성대한 레드카펫 행사가 관객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담보한다고 여전히 믿은 것이다. 그래서 성년을 앞둔 내년에도 배우들을 불러모으는 데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다 아시아는 대표할 정도로 훌쩍 성장한 영화 축제가 누가 개막식에 오고 안 오고로, 또 누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로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릴까봐 걱정이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우리만의 잔치인데, 배우들 몇몇으로 인해 흔들린다는 광경이 너무 속상해서 드리는 말이다.

'룰루랄라' 브라질의 추락

정론탁설
유병필
<언론인>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잡음이 수그러들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천막투쟁을 벌였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일단 국회로 돌아와 의정 활동을 펴기로 했으나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태세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한때 각광받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였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중산층 육성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 브라질은 높은 세금과 재정을 우시한 연금 지급,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투자 부진 등이 겹치면서 곤경은 겪고 있다.

적당의 대책이 있는 한 내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치른 후 건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 불과해 신흥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밀릴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레알화 절하가 대외 경쟁력을 다소 높여주기는 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소득을 낮춰 소비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브라질은 파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리우데자네이루 도심에서 지난주 교사와 시민 등 2만여 명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추락하는 브라질 사태를 커버스토리로 다룰 정도다. 브라질은 연금 한 가지만 해도 수령자가 사망하면 다른 나라들은 배우자가 대략 절반 정도를 승계해 받게 되나 배우자의 정년에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경기가 언제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날지, 세금 증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데 생산의 주역인 기업은 상위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돌아가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대기업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데다 총수들의 잇단 구속, 국정감사의 유례없는 증인 출석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도 많다. 여기서 우리는 브라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선 경제를 살려 고용을 늘리는 일이 급하다. 그리고 나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포토프리즘 | 가을밤 적신 은발의 뮤지션

11일 오후 전다의 지스트에 참가한 밴드 신촌블루스가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주차장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제법 쌀쌀한 바람에 불던 금요일 밤 유난히 긴 은색머리를 휘날리며 기타 연주를 하는 리더 엄인호의 모습이 그룹의 원숙해진 음악과 어우러져 더욱 멋진 모습을 연출했다. /손진영기자 son@

대한민국 4대 중독법

기자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4대 중독에서 게임을 빼야 합니다."

최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일명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인들은 게임이 언제 4대 중독에 들어가 '악의 축' 대접을 받는지 의아할 뿐이다.

4대 중독법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쓴웃음만 삼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셧다운제 등 각종 게임 규제가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중심"이라며 "만화방과 오락실을 단속하던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게임 오남용을 막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회복할 수 없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유소 수준의 장려 정책을 선보인다.

1970년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만화는 일본과 미국 만화에 잠식되다 IT 발달에 힘입어 간신히 재도약했다.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한국 만화관에는 수출을 문의하는 바이어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게임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콘텐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게임 산업을 더욱 육성할 때다.

기억과의 전쟁

인문학 산책
김만웅
<성공회대 교수>

미국의 경우다. 응급요원은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제16대 미국 대통령은? 뉴욕시 시장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버벅대면 영락없이 뇌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손가락은 몇 개?"라는 질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은 가물가물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의 실종 문제는 해결되는가? 같은 일이라도 기억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일이 적지 않다.

개인의 기억도 이런 갈등과 긴장이 있기 마련인데, 집단 전체의 기억은 어떨까? 그건 때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고 부른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관련된다. 그건 기억일 것에 대한 선택, 배제, 해석의 작업이 함께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가 된다. 그래서 일본에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한다. 그러다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베트남인들에게 어떤 잔혹한 일을 했는지는 지식의 공백 상태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착한 일만 하고 온 사람들이다. 베트남인들의 기억도 과연 우리와 같을까?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가족은 오랫동안 한을 풀어달라고 진정해 왔다. 하지만 그런 발언과 호소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취급당했고, "빨갱이였으니 죽였지"라는 식의 대답이 되풀이됐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들 유가족 단체들을 반공법으로 엮어 옥고를 치르게도 했다. 입을 틀어막고 다리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김동춘 교수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에 대한 대담이 벌어졌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의 기억을 자기들 유리할 대로 조작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죄는 철저하게 가리고, 피해자들을 도리어 가해자요, 죄인인 것처럼 기억하게 한다." 친일파 청산이 되지 못한 역사가 낳은 비극이다. 그들의 후예는 여전히 이 기억의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뇌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우리는 정작 필요한 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자들의

어느 여배우 아버지의 '건초염 탈출기'

딸의 동료 연예인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방문 '비수술' 유전자줄기세포주사 후 도수치료 받아

유명 배우의 아버지 S(55)씨는 평소 앓던 오른쪽 팔꿈치 건초염으로 그동안 연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맞으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자주 관절이 재발해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술을 권유했다.

S씨는 수술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고민을 하던 중 딸인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강남 초이스 병원 휴대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진단하고 S씨가 수술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연대 치료 주사를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

◆만성 연대질환·관절통 치료 가능

최 원장은 "3년 전부터 강남 조이스 병원에서 시행했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며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는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씨는 주사 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 조이스 병원의 특성 치료인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 치료, 근육 강화 운동 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동안 받았다.

◆환자 한명에 전담치료 4인 배치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척추 관절 치료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 조이스 병원은 환자들의 근본적인 치료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원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재활을 진행한다. 특히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 1인당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4명이 전담 배치된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으로 재활이 이뤄지도록 치료를 선진화 및 체계화시켰다.

◆휴대점 계획교정 클리닉 도

현재 강남 조이스 병원은 자하철 서울대입구역의 본원 외에 휴대입구역에 직장인들 및 증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했으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 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 센터는 섬세하게 진단하고 효과 빠른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최 원장은 "첨단 장비로 치료하면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875-2200 /북재이

노인 진료비 한해 16조 '1인 300만원꼴'

전국민 진료비의 3분의 1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진료비가 16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민 진료비가운데 3분의1을 차지하는 것으로, 노인 1명의 외래·입원에 한 해 평균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발간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4966만2000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11년보다 3.5% 늘어난 47조8392억원이며, 이 중 34.3%인 16조4494억원이 노인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진료비는 2005년과 비교해 7년 만에 2.7배로 늘어났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307만6000원) 역시 2배나 증가됐다.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한 해 510만 명의 진료에 총 2조2811억원이 들었으며 만성 신장질환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각각 1조2722억원(14만 명), 1조1311억원(141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13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혈압이 53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256만 명), 정신 행동장애질환(244만 명), 당뇨병(221만 명), 간질환(153만 명) 등의 순이었다.

또 이들 만성질환자의 연간 전체 진료비는 17조4000억원이었으며 특히 암 등 악성 신생물(4조2000억원), 고혈압(2조5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2조4000억원) 등의 치료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가을 풀숲 '감염병 주의보'

쓰쓰가무시병 등 증가추세 야외활동 후 위생관리 중요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시작되면서 자연을 벗 삼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성한 풀숲 사이로 번식하고 있는 진드기와 각종 세균은 우리 몸에 여러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에는 쓰쓰가무시병,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데 매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쓰쓰가무시병은 쓰쓰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들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감염된다. 보통 10~12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발열·발한·두통·피로감·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설사 등 위장 관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피부에 진드기 방충제를 발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유행성 출혈열은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도 불리며 한타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말라바이러스 등이 병원균이다.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이나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나오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며 3~5일 후에는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지역에 방문하지 말고 들쥐의 분변이나 오줌이 배설된 풀숲에서의 휴식이나 야영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 예방접종을 받아 미리 면역력을 키워두는 것도 좋다.

렙토스피라증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며 그로 인해 오염된 강물·지하수·흙과 접촉하면 감염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충혈 등이 있으며, 황달이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야외 활동 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강종철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숲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한국얀센 '파마컵' 우승

한국얀센이 국내 글로벌 제약사 월드컵인 제1회 파마컵에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2일 경기 하남시 선동둔치체육시설에서 열린 파마컵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지난 6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A조(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애보트·한국릴리·한국다이이찌산쿄)와 B조(한국얀센·한국화이자·한국먼디파마·한국노바티스)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치렀다. 결승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황재용기자

설악산 18일 절정… 내장산 '만추 본색'

가을 물드는 전국 명산들 단풍 구경 언제 갈까

올해 본격적인 단풍 구경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하늘만큼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산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단풍 여행을 떠나보자.

우선 수도권에 있는 북한산에서는 15일부터 20일까지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에서 단풍 인파를 피하려면 백운대 등산로보다는 만경대와 노적봉을 이어주는 등산로나 대남문과 비봉을 이어주는 능선을 오르는 것이 좋다.

또 강원도에서는 중순을 지나면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명산 설악산 단풍은 18일에서 21일에 절정에 이른다. 설악산 정상 부분은 지난달 말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공룡 능선까지 단풍이 도달할 예정이다. 또 19일경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계령과 미시령으로 단풍이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단풍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색 단풍으로 유명한 오대산을 찾는다면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선재길이 단풍 구경 명소다.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저마다 다른 색상을 보이며 물드는 오대산의 오색 단풍은 지난 3일 시작됐으며 20일 전후로 오색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붉을 적(赤)자를 써 '적악산'이라 불릴 정도로 단풍이 눈부신 치악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치악산은 25일 전후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전망이다.

중부권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단풍이 시작된다. 우선 남한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주왕산은 단풍과 어우러지는 암벽과 봉우리들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곳으로 30일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월악산도 15일부터 단풍이 시작돼 27일경 절정에 다다르며 속리산 단풍 역시 27일께 장관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남부권은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남부권에서는 지리산을 제외하고 11월이 넘어야 단풍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다.

지난 7일 첫 단풍이 시작된 지리산의 단풍 절정 기간은 20일까지며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둘레길은 24일 전후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뱀사골·구룡계곡 등 주요 계곡 단풍은 11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올가을 단풍 시기 예상도>

13일 휴일 맞아 설악산 산책에 나선 등산객들이 붉게 물든 단풍 아래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장산은 22일부터 단풍이 시작돼 다음달 6일경 절정에 이르며 팔공산은 29일, 올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다음달 6일을 기점으로 절정에 오른 단풍을 볼 수 있다. 또 제삼 땅끝의 두륜산 단풍은 11월 중순이 돼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비행기를 타고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라산 단풍은 오는 27일께 제대로 된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단풍 절정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단풍 실황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예능에 뜬 '독서 도우미' 인기

'노홍철 거치대' '전현무 안경' 등 최근 매출 늘어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파크는 4일부터 10일까지 독서 관련 상품 판매량이 전주에 비해 49%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MBC '나 혼자 산다', SBS '런닝맨의 친구들'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전현무 안경', '노홍철 거치대'와 같은 개성 넘치는 독서 도우미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LAB C 아이베드 거치대'는 침대·소파·의자 등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거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다. 방송에서 '노홍철 거치대'로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보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 침대에 누워서 이용하기 좋다.

'전현무 안경'으로 불리는 '지오 누워서 책 보는 안경'은 광학 프리즘을 적용한 반사 안경으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준다.

독서플래너와 함께 쓰기 좋은 '오피스웰티 헤이스 A60 독서대'는 여러 권의 책과 함께 태블릿 PC 등을 올려놓을 수 있어 독서 중 정리 및 메모하기 좋다.

단 5분도 책에 집중하기 어려운 '독서 초보'라면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베개쿠션 거그'는 V자형을 중심으로 몸을 감싸는 쿠션이 팔걸이와 거치대 역할을 동시에 해 자연스럽게 팔과 책을 받쳐 장시간 편안한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박지원기자 ...

억새 춤추고 국화 향 진한 '축제의 계절'

가을 지역별 축제 정보

단풍놀이가 시작되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단풍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도 풍성하다.

경기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10월 20일)를 시작으로 동두천 소요단풍제(10월 26~27일), 전남 구례 피아골 단풍축제(11월 2~3일), 장성 백양 단풍축제(11월 1~3일) 등 각 지역은 단풍 절정 시기에 맞춰 가을의 향연을 준비한다.

단풍과는 다른 매력으로 가을을 수놓는 억새와 국화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억새축제(10월 18~27일)와 전남 장흥 천관산억새제(10월 중순),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강원 정선 민둥산 억새꽃축제(~11월 3일)까지에서는 가을 햇살 아래 출렁이는 억새의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가고파 국화축제(10월 25일~11월 3일)와 전남 함평군 국향대전(10월 25일~11월 10일)에서는 형형색색으로 물든 국화 꽃밭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보며 해인사의 가을 풍경을 맛볼 수 있는 경남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 2~26일)도 삭막했던 도시를 아기자기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제주도에서는 도보 여행의 대명사가 된 제주 올레길 축제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소개한 '2013 오감만족 가을 축제 지도'를 보면 단풍놀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황재용기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亞 최대 규모로 확장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된다.

신세계사이먼은 13일 내년 말까지 부지 면적 26만4000㎡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아시아 최대 규모인 46만3000㎡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장 면적은 기존 2만6000㎡에서 4만9000㎡로, 브랜드도 145개에서 250여 개로 각각 늘어난다. 회사는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아웃도어, 스포츠, 국내 패션 브랜드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패션 브랜드 매장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바람막이 춥고 다운점퍼 부담될때!

뜨는 간절기 패션 '패딩 베스트' 코디 요령

등산·캠핑 등 레저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야외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인기다. 특히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패딩 베스트가 일찌감치 올가을 유행을 이끌고 있다.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버그하우스의 마케팅실 조종하 부서장은 "패딩 베스트는 바람막이·재킷으로는 2% 부족하고 헤비 다운을 입기에 이른 감이 있는 환절기에 유용하다"며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스타일링도 간편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겨울까지 입을수 있어

최근에는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면서도 옷맵시를 살릴 수 있게 얇고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멋쟁이 남성들의 경우 재킷 위에 패딩 베스트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블랙·그레이·네이비 같은 톤다운된 컬러를 선택해야 멋스럽다. 여성들은 옐로나 골드 베이지 등 튀는 색상을 입어야 경쾌해 보인다.

◆캐주얼엔 포인트 아이템으로

패딩 베스트는 체크 셔츠나 스웨터 티셔츠와 함께 입으면 빈티지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하의로는 생지류의 데님이나 얇은 코듀로이 팬츠가 잘 어울린다.

까스텔바작의 관계자는 "체크 셔츠처럼 패턴이 화려한 이너에는 단색의 패딩 베스트를, 평범한 티셔츠와 매치할 땐 옐로·그린 등 밝은 색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며 "머플러나 넥워머 등의 소품을 더하면 한결 따뜻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서울패션위크 '문화축제 새옷'

18~23일 시민참여 확대

2013 추계 서울패션위크'가 기존의 패션 위주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 패션문화 콘텐츠로 새옷을 갈아입고 화려하게 개막한다.

올해 추계 서울패션위크는 18일부터 엿새간 여의도IFC,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우선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서울컬렉션'을 통해 이상봉·지춘희 등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총 52회에 걸쳐 선보인다. 여기에 계한희·권문수 등 12명의 신예 디자이너들이 참의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제너레이션 넥스트'도 마련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리사이클을 테마로 한 '800g 패션도네이션'은 시민들이 기처온 의류를 판매, 수익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해 환경과 이웃을 모두 돕는 행사다. 아울러 해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부터 희귀 골동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도깨비 마켓'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참여하는 'K-스타일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는 21일 여의도IFC몰에서 진행되며 '패셔니스타'로 떠오른 지드래곤의 무대도 예정됐다. /박지원기자

'태양의 다운' 입은 공효진 노스페이스가 지난 11일 명동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2013년 겨울 시즌 노스페이스 다운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배우 공효진의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공효진이 팬사인회를 갖기에 앞서 다운 신상품인 '윌락 코트'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태양의 다운'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윌락 코트는 트렌디한 레드 컬러에 내구성과 방풍·방수 기능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노스페이스 제공

뉴스&뉴스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마라톤' 전국 릴레이 완주

●아모레퍼시픽은 13일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 대회를 끝으로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5대 도시에 걸친 릴레이 일정을 완주했다고 밝혔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유방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서울대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아이오케와 미장센의 모델인 배우 고소영과 유이안 등도 자리를 빛냈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된다.

안면 기형아 성형 후원 '오휘 아름다운 얼굴' 바자회

●LG생활건강이 13일 선천성 안면 기형 어린이 성형을 후원하기 위해 '오휘 아름다운 얼굴 캠페인'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오휘의 베스트 아이템과 함께 '2013 오휘 아름다운 넘버원 카드' 한정판을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선천성 안면 기형 어린이의 성형수술비로 지원한다. 이날 오휘 모델인 배우 김태희도 직접 제품 판매에 나섰다.

"한달새 매출 100배… 내년 목표 1500억"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국내 론칭 1년 맞은 F&F

"론칭 1년 만에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조기 안착한 만큼 내년까지 140개 매장을 확보하고 매출 1500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김창수 에프앤에프(F&F)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 론칭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주요 백화점 10개 점에 동시 입점하며 내년 2월까지 매장 100개는 무난하게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선보이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지난해 7월 국내 패션기업 F&F가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했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25~40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 아웃도어와 달리 등산·바이킹·캠핑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공략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면서 "지난 9월 매출이 전월 대비 1000% 이상 신장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내년 봄에 키즈 라인을 론칭하고, 아웃도어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스포츠 및 캐주얼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품력으로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80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도 선보일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20~40대 구매파워 메트로신문 주독자

미디어인덱스 열독률 조사 결과

전체 일간지 중 본지 7위 기록 '소비리더' 여성 독자 40% 달해 메트로만 읽는 충성층 47%나 매체 영향력 또한번 입증 '눈길'

본지가 한국리서치 미디어인덱스 조사에서 전체 일간지 중 열독률 7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 집중도 조사에서 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8개월 만에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 스마트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종이신문, 특히 무료 일간지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다은 성과여서 주목된다.

특히 본지는 우리 사회의 파워 구매 세대인 20~39대 젊은 독자층과 40대 독자층이 85%에 이르고, 여성 독자층도 40%에 달한다. 독자의 50% 이상이 무료 일간지 중 본지만 읽는 충성 독자이며, 좋아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성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호외 특별판을 발행,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 30개 대상 면접 조사

미디어인덱스의 국내 일간지의 열독률 조사 결과 메트로신문이 7위를 차지했다. 미디어인덱스는 연간 3회에 걸쳐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 형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만 3번째인 미디어인덱스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급 이상 도시의 11~64세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는 등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조사는 종합 일간지 10곳, 경제지 7곳, 무료 일간지 6곳, 스포츠지 6곳 등 총 30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부 '여론집중도' 조사선 8위

본지는 이미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여론 집중도 조사 결과에서도 8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여론 집중도 조사는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 정도에 대한 조사다. 문화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를 포함해 전국 70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70개 신문사 중 신문 열독 점유율이 2% 이상인 신문사는 전국 일간지 7곳, 경제일간지 1곳, 지역 일간지 1곳, 무료 일간지 1곳 등 10개사에 불과했으며, 무료 일간지로는 유일하게 본지만이 포함됐다.

본지의 가장 큰 강점은 강한 충성 독자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인덱스 조사 결과 독자의 47.5%가 본지만 읽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료 일간지에 비해 높은 수치다.

본지 독자들은 인터넷을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관심을 가진 온라인상의 사이트를 지인이나 친구 등 타인에게 추천하는 성향이 매우 높았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다른 매체 일간지에 비해 뮤지컬, 박물관, 음악, 영화 페스티벌 등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강한 독자층은 20대가 25%, 30대가 30%, 40대가 30%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파워 구매층으로 형성돼 있다.

/김태균기자 kgt@metroseoul.co.kr

'열독률' 매체 영향력 평가척도 전국 독자 개별면접 95% 신뢰

미디어인덱스의 일간지에 대한 열독률 조사는 우리나라 독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열독률이란 신문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전체 조사 대상 중 최소한 5분 이상 특정 신문을 읽거나 본 비율을 의미한다.

구독률은 신문 판매 부수, 즉 신문을 구매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열독률은 특정 신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독률보다 열독률에 따라 특정 신문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인덱스는 특히 독자가 미디어를 만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제품 구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라이프스타일은 어떤지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특정 신문와 주 독자층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미디어인덱스는 또 면접원이 신문 구독자를 직접 방문하는 일대일 면접 방식을 채택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시행된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범위는 0.97%였다.

대학생이 꼽은 '무료일간지 1위'… 온라인도 '최고'

메트로신문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료 종합 일간지로 꼽혔다. 결과는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메트로신문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료 일간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대학신문은 오는 15일 창간 25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메트로신문을 무료 종합 일간지 부문 '한국대학신문 대상'에 선정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한국대학신문 대상은 전국 주요 대학 2000여 명의 대학생 표본을 추출, 온라인을 통해 선정했다.

한국대학신문 대상은 ▲기업 이미지 ▲상품 ▲언론 ▲신문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뽑은 선호도 1위를 선정한다.

메트로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무료 종합 일간지 선호도 1위(37.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오프라인 35.5%, 온라인 39.4%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타 무료 종합일간지를 앞도했다.

◆지역별 대학생 메트로신문 선호도
<출처 한국대학신문>

서울·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강원권
44.0%	36.4%	20.4%	28.7%	31.3%

지역별로도 서울·수도권 44.0%, 경상권 28.7%, 전라·제주권 20.4%, 충청권 36.4%, 강원권 31.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대학신문 관계자는 "한국대학신문 대상은 일반 언론사나 단체가 선정하는 히트 상품과 달리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대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시상제도"라고 밝혔다.

/유현지기자

스마트폰에 빠진 출근족 "eye 괴로워"

흔들리는 버스·지하철 안서 장시간 이용땐 근시 가능성 "기기 사용 최대한 자제해야"

스마트폰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량 증가로 인해 시력 저하를 비롯한 다양한 안구 질환이 유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의 눈은 근거리와 원거리를 볼 때 눈의 섬모체근으로 수정체를 조절해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대부분 작은 화면에 눈을 가까이 하거나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눈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굴절력이 과하게 작용해 근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같은 기기들에 오랜 시간 집중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도 가중시켜 시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고도 근시 유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눈은 15~20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되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는 1분이 넘게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안구가 건조해지고 눈도 쉽게 피로해진다. 이로 인해 시력 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심각할 경우 각막 염증이나 충혈, 결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VDT 증후군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장시간 사용자들이 경견완(목·어깨·팔) 장애,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앓는 것이다. 흔히 직장인들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눈의 피로, 손의 통증, 피로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원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작은 화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눈에 굴절력이 과하게 작용해 근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화면을 지나치게 눈에 가까이 해 보는 것을 피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흔들리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그래픽 박성철 [illegible]@metroseoul.co.kr

"10명 중 4명은 디지털 치매 증상"

휴대전화 전자파 건강 위협

실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준 휴대전화가 건강과 맞바꾸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를 커피나 절인 채소 등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하면서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심각성이 처음 제기됐다. 또한 IARC는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은 뇌종양이나 청신경종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가량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엘리베이터처럼 막힌 공간이나 지하철 등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다. 반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건강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사실은 잊지 못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막힌 공간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지하철, 버스 등 차량에서 송수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송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출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보다 큰 전자파가 발생한다.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전자파 흡수율값이 0.8W/kg 이하면 1등급, 0.8~1.6W/kg인 제품은 2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일정 기준(1.6W/kg)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은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전자파 흡수율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량을 뜻한다. 전자파 흡수율이 클수록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디지털 치매', '스마트폰 중독' 등 정신적 피해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치매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디지털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중독 역시 우울증, 환청, 수면장애, 적응장애 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한창 뇌가 발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모가 어린이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박철레 한국의대 명예교수는 "실제로 휴대전화 전자파가 원인이 돼 프랑스에선 휴대전화 기지국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12년 동안 하루 6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암 발생을 작업병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처럼 스마트폰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유해성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전자레인지'라고까지 불린다.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자기 위치 파악을 위해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고 이는 그대로 인체로 전달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손진영기자 son@

폰으로 '톡톡톡' 사고위험 '쑥쑥쑥'

김주석(27)씨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다 자신이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놓칠 뻔했다. 이미 문이 닫히려던 찰나 급히 빠져나왔으나 가방이 문에 걸리고 말았다. 김씨는 혹시 사고라도 날까 우려돼 어깨끈을 급히 풀고 뒤늦게 분실물센터에 연락해 가방을 찾았다.

박형준(34)씨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문을 향해 걸어갔다. 통화에만 집중하던 그는 틈에 발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금방 발을 빼낼 수 있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최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뉴스, 게임, 업무 등을 하는 모습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안전사고 유발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지하철 기관사, 역무원 등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몰입이 안전사고 발생의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발생하는 사고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사고가 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지하철 측은 "위험하니 승하차 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도 자주 내보낸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지하철에서 신문이나 책을 이용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면서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승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기자

"연기 부족 느껴…가장 고맙고 아쉬운 작품"

'투윅스' 끝낸 김소연

#엘리트검사 박재경 열연

3년 전 SBS '검사 프린세스'에 출연했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활기차다. 몇 달간 밤샘 촬영으로 녹초가 된 가운데, 수십 개의 매체와 만나기를 반복하면 누구라도 지칠 법한데 힘든 내색 없이 연신 '하하호호' 웃는다.

이번 작품에서 엘리트 검사 박재경을 열연한 그는 이날도 "함께 출연했던 (박)하선이의 시를 전에도 동봉했다. 하선이는 물론 (이)준기씨, (류)수영 오빠 등 출연진 모두 성격이 좋아 현장에 갈 때마다 즐거웠다"며 화기애애했던 촬영장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다들 걱정을 안고 시작한 작품이었는데 잘 끝나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기했고 무더위도 이겨내서 뿌듯해요. 원래 작품이 끝날 때마다 다음 작품이 없으면 조급함 때문에 3~4개월의 공백을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기간을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캐릭터 나와 너무 다르죠 제 성격은 '무한 긍정녀' 하하

#연기 20년 발성부터 다시

올해로 꼭 연기 경력 20년이다. 중학교 3학년이던 1994년 '공룡선생'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주목받은 뒤 '이브의 모든 것' '가을 소나기'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아이리스' '검사 프린세스'가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뛰어난 연기력까지 겸비한 인기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투윅스'는 가장 고맙고도 아쉬운 작품이에요. 실제의 나와는 너무 다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연기가 쉽지 않아 스스로 부족함을 절감한 기회였죠. 보완할 점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연기는 수학 공식처럼 해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고 계속 계도 하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년 경력은 잠시 접어두고 발성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배울 생각이다. "한 소속사에 있는 윤제문 정보빈 선배의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배우고 싶다. 말뿐이 아닌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20년이 됐으니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봐 주세요. 꾸준히 하면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캐릭터가 다와 맞지 않아 연기를 못하더라도 다음 작품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유 있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인간 김소연도 소중

드라마 종영 후 첫 일정으로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과 언니, 형부, 조카들과 함께 일주일간 미국 하와이로 떠난다. 미국은 처음이라며 눈을 빛내던 그는 "전작 SBS '대풍수'가 끝나고 가족 여행을 갔는데 물건보다는 추억이 주는 풍족함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여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어릴 적부터 화려한 연예계에서 20년을 지내왔지만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 요구르트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다며 마실 만큼 근검절약하는 어머니 덕에 검소함이 몸에 배였다. "집에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14년 된 색조 화장품이 아직도 있는데, 이번에 생각난 김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멋쩍어했다.

올해로 서른셋. 요즘 연예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다고 했다. "예전엔 배우 김소연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젠 인간 김소연도 소중해졌어요. 남들 눈을 의식하는 연예인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어졌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죠. 그래야 좋은 배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용기자 @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예비 아이돌 그룹>

"위너 보자"…영등포 마비됐다

정식 데뷔 전 불구 3000여 팬 몰려… 비명·눈물 '범벅'

예비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가 포스트 빅뱅 의 위용을 드러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습생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위너는 1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파이터지' 행사를 열고 처음으로 대중과 만났다.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그룹임에도 행사장에는 3000여 팬이 몰렸다.

이날 행사는 멤버들이 모두 300명의 팬과 손색을 마주치고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로, 현장에는 정원의 10배 이상이 몰려 타임스퀘어와 일대가 마비되는 대혼잡을 빚었다. 행사 전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자를 결정하자 팬들 사이에는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당첨자는 멤버들과 손을 마주치는 것은 물론 파이널 생방송 방청권과 친필 메시지 카드, 폴라로이드 포토카드 등도 손에 넣었다. 일부 팬들은 멤버들을 가까이에서 본 기쁨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복을 입고 등장해 절을 하는 독특한 팬이 있었고, 남성 팬들도 상당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승윤은 "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돼 잠을 못 잤다. 현재 마지막 배틀을 앞두고 있는데 밤을 새워 준비하겠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총 11명의 멤버가 A팀(송민호·김진우·이승훈·남태현·강승윤)과 B팀(B.I·김진환·바비·송윤형·구준회·김동혁)으로 나뉘어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WIN'(이하 'WIN')에서 공개 경쟁을 벌이고, 시청자 투표에서 이긴 팀이 위너라는 이름으로 데뷔한다.

위너는 YG가 빅뱅 이후 7년 만에 내놓는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WIN'은 아리랑TV로 전 세계 188개국, 채널V와 채널M으로 10여 개 아시아 국가에 방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현지 최대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에 독점 방영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BIFF 2년 연속 20만 관객

궂은 날씨에도 성황리 종료…뉴커런츠상 '파스카' 등 2편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배우 윤계상(오른쪽)과 송선미가 멋진 턱시도와 드레스 맵시를 뽐내고 있다. /뉴시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2일 '만찬'의 상영을 마지막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막 내렸다.

배우 윤계상과 송선미의 사회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이날 폐막식에선 김동현 감독이 연출한 '만찬'의 상영에 앞서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섹션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선경 감독의 '파스카'와 몽골 감독 바얌바 사키아의 '리보트 콘트롤'이 공동 수상했다.

70개국 299편이 상영된 올해 영화제는 모두 21만7865명의 관객이 찾았다. 지난해 22만3000여 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2년 연속 20만 관객은 돌파했다. 영화계 중반 태풍 다나스로 일부 행사와 상영이 취소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만큼의 성공적인 관객몰이란 평가다. 영화 장터인 아시아필름마켓에도 전 세계 각국의 영화 관계자 1272명이 참여해, 1098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관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화계의 정체성을 다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강동원의 레드카펫 나들이 불참 이유를 둘러싸고 소속사와 영화제 측의 볼썽사나운 폭로전이 불거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성준기자 when@

파격을 입은 여신 김태희

김태희가 파격적인 초미니 가죽 스커트를 입고 가을 나들이를 했다. 그는 13일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오롯 2013 아름다운 얼굴 바자회'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후원회와 함께 선천성 안면기형 어린이 수술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김태희는 자신 재능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등 어린이들의 수술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따뜻한 천사 종횡한 패션

/유순호기자

비 팬미팅 통역기 1300대 동원

제대 후 첫 공식행사

비(사진)가 전역 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그는 12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2013 레인 위드 유 팬 미팅'을 개최했다. 7월 군 제대 후 연 첫 공식 행사다. 행사장 일대에는 오전부터 많은 팬들로 북적였고 일본·중국·미국·페루·브라질·터키 등 각국에서 몰려온 3000여 팬을 위해 3개 국어 통역기 1300대가 동원되기도 했다.

비는 행사 내내 미소를 보이며 오랜만의 팬미팅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일본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팬들과 눈을 마주보며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국내에서도 하고 싶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공연으로 만나자"며 향후 활동에 기대를 당부했다.

'레이니즘' '힙송'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등 7곡을 라이브로 선사한 비는 새 앨범 준비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매력을 지닌 노래와 무대를 구상 중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좋아할 음악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는 다음달 14일 일본 제프 나고야를 시작으로 후쿠오카·오사카·도쿄 등 4개 도시에서 '2013 레인 제프 투어-스토리 오브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총 10회 투어 공연을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tar bag

아버지 하늘나라로 보낸 그녀

가수 **손담비**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13일 손담비 측에 따르면 부친은 지병으로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외동딸인 손담비는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일부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강동구 상일동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10시다.

연기자 출신 오서운과 결혼

가수 **현진영**(왼쪽)이 연기자 출신 오서운과 12일 지각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그맨 윤형빈의 사회로 진행됐다. 후배 조성모와 진주가 축가를 불렀다.

2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식을 미뤘던 현진영은 "아내가 더 예쁘고 어릴 때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번째 단독 콘서트 열어

걸그룹 **씨스타**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로 3000여 팬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씨스타 라이브 콘서트-에스(S)'를 열고 '가식걸' '나 혼자' '기브 잇 투 미' 등 기존의 히트곡들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마지막 무대인 러빙유 때 일제히 노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려 화답했다.

日서 뮤지컬 레퍼토리 선사

뮤지컬 배우 **김다현**이 일본 팬들을 홀렸다.

김다현은 11일 도쿄 아마나홀에서 열린 '한국 뮤지컬 배우 콘서트 온 토크'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헤드윅' 등 자신이 출연했던 뮤지컬들의 레퍼토리들을 선사했다.

김다현은 '아가씨와 건달들'로 다음달부터 국내 팬들과 만난다.

안성기 '화장' 출연료 묻지도 않고 콜!

연예가 소곤소곤

▶원작소설 읽고 연기 욕심

작품보다 출연료에만 목숨 거는 요즘 일부 젊은 톱스타들, 선배인 안성기를 보고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기가 개런티 액수도 묻지 않고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인 '화장'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태백산맥' '취화선' 등에서 여섯 차례나 호흡을 맞춘 임 감독의 차기작인 데다 평소 존경하는 김훈 작가가 쓴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을 워낙 재미있게 본 터라 연기 욕심이 나 출연 제의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는데요. 영화 제작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십 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했지만 출연료도 듣지 않고 출연부터 결정하는 배우는 처음 봤다"며 안성기의 연기 열정에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노출각 배우 A, B와 열애부인

혼기를 훌쩍 넘긴 남자 배우 A가 연애설이 불거졌던 후배 여배우 B와의 관계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걔는 절대 아니다"며 교제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 지인에 따르면 A는 주위 사람들이 "계속 사귀느냐, 나이도 있는데 이제는 공개하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냐"면서 "무릇 여자는 만나면 몸이 반응해야(?) 하는데 B는 내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친다는군요.

A의 이 같은 부인에 이 지인은 "표정을 봐서는 진짜 안 만나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나이 탓이거나 그동안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켜 몸에 반응이 오지 않는 걸 가지고 괜히 남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귀띔했습니다.

▶여가수 C 도넘은 남성 편력

여가수 C의 도를 넘은 남성 편력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C는 연예인치고 그리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주위에 남성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비결은 술자리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취기가 오르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해 사심 없이 접근한 남성들도 어김없이 깊은 관계를 맺곤 한답니다.

홍대 일대에서는 C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매번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되곤 하는데요. 한때 그와 공개 연애를 했던 D가 C와 이별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C의 문란한 행동 때문에 지인들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인데요. 한 지인은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뱉더군요. /연예부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e are ready to order. 외식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우리는 주문할 준비가 되었어요.
제 스테이크는 웰던으로 해주세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매우 훌륭해요.
계산서 좀 주실래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e are ready to order.
I want my steak well done.
Would you please pass the salt?
They serve very good food in this restaurant.
May I have the check, please?

반복 훈련으로 저절로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조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e are 주문할 준비가 된.
B All right. What would you like?

정답 ready to order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want my steak [well done / rare].

2 May I have [the check / a glass of water] pleas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일반동사 현재시제 부정문

▶ 동사원형 앞에 don't [do not]나 doesn't [does not]를 써서 ~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변화
I/we/you/they	don't sleep
he/she/it	doesn't sleep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_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don't read newspapers anymore.
저는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아요.

2 My mom doesn't eat ice cream.
우리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드시지 않아요.

3 They don't have enough money. 그들은 충분한 돈이 없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rains for Gruyville ______ at 9:00 A.M. Monday through Friday.

(A) depart (B) is departed
(C) departs (D) is departing

02 Noted author Neha Dehur will be signing copies of her ______ acclaimed book, *The Forgotten*, on Sunday at the Gloucester University Bookstore.

(A) critically (B) criticism
(C) critics (D) criticize

01 그뤼빌행 열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발한다.
해설 전치사 수식 구조인 for Gruyville을 뒤에 두면 주어가 복수인 Trains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복수동사인 (A) depart를 써야 한다.
어휘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정답 (A) depart

02 유명 작가인 네하 디후어가 일요일에 글로스터 대학 서점에서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그녀의 저서 '잊혀진 사람들'의 책에 사인을 해줄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소유격 her, 뒤에는 과거분사 acclaimed가 있으므로 과거분사를 수식하는 부사 (A) critically를 쓴다.
어휘 noted 잘 알려진 sign 서명하다 critically acclaimed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critic 비평가
정답 (A) critical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연음 현상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 발음하지 않고, 한 단어의 끝부분이 다음 단어의 첫부분과 연결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마치 한 단어처럼 연결하여 발음하는 것이 연음입니다.

자음+모음

앞단어의 끝부분 자음이 다음 단어의 모음에 붙어서 발음됩니다.

give it a try [gɪv ɪt ə traɪ] /기비러트라이/ — hold on [hoʊld ɑːn] /홀단/
call us [kɔːl əs] /콜러스/ — with us [wɪð əs] /위더스/

자음+자음

앞단어의 끝부분 자음을 생략하고, 바로 그 다음 단어의 자음을 발음합니다.

has she [hæz ʃi] /해쉬/ — just stop [dʒʌst stɑːp] /저스탑/
don't know [doʊnt noʊ] /돈노우/ — attend the [ətend ðə] /어텐더/

류현진 특명! 2연패 다저스 구하라

내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3차전 선발 등판

류현진(26·LA 다저스)의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워졌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선승제)에서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다저스는 13일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NLCS 2차전에서 홈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0-1로 져 1차전 연장전 패배 이후 이틀 연속 덜미를 잡혔다.

선발투수로 나선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는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아내며 피안타 2개에 1실점(비자책점)으로 잘 던졌지만 타선의 외면으로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이날 다저스 타선은 5안타 무득점에 그쳤다. 몇 차례의 득점 기회에서 6타수 무안타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커쇼와 세내기 마이클 와카의 팽팽한 투수전이 계속되던 5회 다저스는 결승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세인트루이스 선두 타자 데이비드 프리스가 좌전 2루타를 친 뒤 다저스 포수 A.J. 엘리스의 패스트볼로 3루까지 내달렸다. 커쇼는 후속 타자 몇 애덤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이어진 존 제이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해 결국 결승점을 내줬다. 이후 다저스는 6회와 7회 만회의 기회를 잡았지만 집중력 부족으로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다.

3차전은 15일 오전 다저스의 안방인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류현진은 이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풍전등화의 팀을 구해낸다는 각오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강성훈 '부활샷'…12언더 우승

CJ 골프 1위 최경주 21위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경주 CJ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다.

강성훈은 13일 경기 여주의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장(파72·726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3년6개월 만에 국내 대회 정상을 밟았다.

최경주는 3년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1타를 잃고 합계 이븐파 288타로 공동 21위에 그쳤다.

한편 위창수(41·테일러메이드)는 같은 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3~2014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오픈(총 상금 5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합계 9언더파 204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조성준기자

강수연 JLPGA투어 정상

강수연(37)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스탠리 레이디스 우승으로 건재를 과시했다.

강수연은 13일 시즈오카현의 도메이 골프장(파72·65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12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1620만 엔(약 1억7000만원)을 챙겼다.

국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거쳐 2011년부터 일본으로 무대를 옮긴 강수연의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JLPGA에서 9승째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이일희(25·볼빅)는 같은 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골프장(파71·6246야드)에서 막 내린 LPGA투어 사임다비 말레이시아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우승은 19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알렉시스 톰프슨(미국)에 차지했다. /조성준기자

최경주 CJ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강성훈(오른쪽)이 주최자인 최경주와 포옹하고 있다. /KPGA 제공

모비스 최다연승 타이기록 '-1'

울산 모비스가 새 시즌에서도 전승 가도를 달리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였다.

모비스는 13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부산 KT와의 경기를 78-69 승리로 장식하며 프로농구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에 1승만을 남겼다. 13연승으로 지난 시즌을 마감한 모비스는 올 시즌 개막 후 2연승을 달리며 연승 행진을 15로 늘렸다.

초반 15점 차로 뒤진 모비스는 골밑의 우세를 앞세워 2쿼터에 40-44로 따라붙었다. 함지훈(24점·5리바운드)과 로드 벤슨(14점·13리바운드)의 활약을 앞세웠고, 종료 직전 양동근의 연속 골밑 돌파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동부도 오리온스를 87-80으로 누르고 개막 후 2연승을 거뒀다. 김주성이 25점·8어시스트·6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삼성은 인삼공사를 88-78로 완파했다. 한편 KCC와 LG는 SK와 전자랜드를 각각 눌렀다. /정순호기자 sun@

박병호 살아야 넥센 산다 두산 뒤집기 드라마 재현

오늘 준PO 5차전 대격돌

벼랑 끝 외나무다리에서 격돌하는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즈가 각자의 주무기와 비밀병기를 앞세워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린다.

두 팀은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2013 한국야구르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의 마지막 경기인 5차전을 벌인다. 2승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넥센은 1·2차전의 승리를 주도했던 홈런 타점왕 박병호의 부활 여부에 운명을 걸고 있다.

가을 잔치를 올해 처음 경험하는 박병호는 잠실구장으로 무대를 옮긴 3·4차전에선 맥을 못 췄다. 특히 3차전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연이어 물러나는 등 평소의 뛰어난 선구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면 대결로 전략을 바꾼 두산 마운드를 상대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넥센 박병호(왼쪽)와 두산 최재훈 /뉴시스

한편 두산은 2010년 준PO의 기적 같은 '뒤집기'를 재현한다는 다짐이다. 당시 롯데에 2연패 후 3연승을 거뒀다.

13일 4차전에서 역전 투런홈런으로 팀의 2-1 승리를 이끈 무명의 최재훈이 다시 한 번 '신데렐라 스토리'를 작성할지에 담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의지를 대신해 포스트 시즌부터 안방마님으로 나선 그는 결정적인 한방은 물론 3·4차전에서 도루 저지율 3할8푼7리로 철옹성 수비를 과시하고 있어 5차전에서도 공수를 아우르는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준기자

홍명보호 내일 말리전 '공격모드'

삼바군단 브라질로부터 완패 쓴 약을 건네받은 '홍명보호'가 말리를 상대로 다시 재평전을 찾는다.

13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네이마르 다 실바(바르셀로나)와 오스카(첼시)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2-0으로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말리와 평가전을 치른다.

말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8위로 내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로 인정받고 있다. 33세의 노장 세이두 케이타(다롄 아얼빈)와 마마두 사마사(키에보 베로나)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과 평가전으로 맞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명보호는 수비에 다소 주력했던 브라질전과 달리 공격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로 맹활약했던 기성용(선덜랜드)의 파트너를 한국영(쇼난 벨마레)에서 이명주(포항)로 바꿔 공격력을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공격진은 13~14일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이 끝난 뒤 "수비의 압박과 변두권 능력 등에서는 준비한 대로 충분히 잘했다"며 "공격력 보강은 당장 누군가 나타난다 해도 앞으로 계속 준비할 뿐이다. 내년 본선까지 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